



3면

"전북 민심 얻는 데 온 힘"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음 4월 25일) 제374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식품산업 새 전환점

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국식클 2단계 조성·기업 유치 등 박차

전북특별자치도가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새롭게 지정되며, 도내 식품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규제자유특구위원 최종심의 결과, 제10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9년 친환경자동차, 2020년 탄소융복합산업에 이어 전북이 5년 만에 확보한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그동안 도가 집중 육성해온 그린바이오 기반 식품산업 전략의 성과로 평가된다.

기능성식품 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에 의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일반식품에 적용 가능한 기능성 원료가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 88종 중 29종에 불과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GMP 시설도 기업당 1곳만 등록 가능해 중소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번 특구 지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자치

도는 지난해 9월 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식품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증계획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

실증사업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비등제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이다. 기존에 일반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던 11종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이를 제품화해 기능성 표시까지 허용받는 과정을 실증한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이다. 이는 스마트 GMP 기반 자동화 공정을 갖춘 공장을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델로, 소규모 식품기업이 별도의 설비 투자 없이 건강기능식품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해당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59억원이 투입되며, 익산·전주·순창·남원 지역의 15개 식품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사업 총괄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맡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전문

기관이 협력해 실증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푸드테크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 유치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기능성식품과 농생명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식품 수출 기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구 운영을 통해 2028년까지 44개 기업 유치, 85명 신규 고용, 96건의 기능성식품 제품 개발, 344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기회발 전특구, 농생명융합 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식품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특구 지정은 전북이 보유한 식품산업 인프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농생명산업 특화도의 위상을 입증한 계기"라며,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글로벌 식품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21일 완주군 석학천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등 참석자들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집중 안전점검을 갖고 있다.

도, 완주군 일대서 여름철 재난 대비 현장점검

석학천·농경지 유실매물 현장 등 복구상황 살피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1일 완주군 일대에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윤수봉·권요안 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석학천 제방 복구현장과 농경지 유실지역, 용복교 등 주요 재해위험 지구를 차례로 점검했다.

특히 석학천 일원은 2023년 7월 제방 일부가 붕괴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현재 제방 확폭과 준설 등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 도지사는 복구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척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각종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관계자들에게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침수 피해를 입었던 농경지 복구 현장을 찾아 현재 마늘과 양배추 등이 다시 식재된 상황을 확인하며 신속한 복구에 힘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지난해 호우 시 홍수경보가 발령됐던 봉동읍 용복교를 찾아 드론 카

메라를 활용한 교량 하부 및 이음새 등 점검이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의 브리핑과 함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시설물 안전을 철저히 살폈다.

현장에서 김 지사는 "기록적인 호우 속에서도 완주군은 2년 연속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지만, 신속한 대응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올해도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고 주민대피와 위험지역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과할 정도의 준비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도내 생활밀착형 시설 1,457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며,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청렴 해피콜'

중앙부처 첫 도입·운영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민원처리 후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과정의 만족도·청렴도 등을 평가받아 개선하는 '청렴 해피콜'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 해피콜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민원인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청렴 해피콜은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새만금청이 처음으로 도입·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청에서는 청렴 해피콜 도입을 통해 민원 처리가 완료된 민원인에게 문자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의 신속성과 청렴도, 친절도, 만족도, 개선 사항 등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청렴 해피콜은 새만금 산단 투자유치, 기업지원, 관광개발, 건축 인허가, 구매·용역·공사 계약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여는 지식의 문 '대표도서관' 첫 삽

2027년 개관 목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식과 문화 중심이 될 '대표도서관'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도는 21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원에서 착공식을 갖고, 2027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관련사진 3면>

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60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만1517㎡)로 조성되며, 약 2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동보존서고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자료실, 전시·홍보 공간, 야외정원 등이 들어선다.

부지면적은 축구장 4개 크기에 해당하는 2만9,400㎡에 달한다.

전북자치도는 이곳을 단순한 '책 읽는 공간'을 넘어, 도민의 일상에 문화와 예술을 더하고,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전북형 도서관 서비스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와 정보의 중심으로서 도서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도는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독서문화 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 이은영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한국 전통 건축의 현대화'를 주제로, 전통한옥의 미와 서양 건축의 실용성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서관'을 구현했다.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책 속에서, 사람 속에서 자신만의 빛과 길을 찾게 되길 소망하며,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전북의 자량이 될 공간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